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7일 화요일 음 7월 10일 (2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C 내외, 낮 최고기온은 28~29°C로 전망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and Seogwipo.

식중독지수 경고, 자외선지수 높음

Table with 2 columns: 주간예보, 내일, 모레. Rows show daily weather forecasts for Jeju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Rows show PM10 and PM2.5 levels for Jeju and Seogwipo.

월드뉴스

탈레반 승리 선언... "전쟁 끝났다"

아프간 수도·대통령궁 탈환 새 정부 구성·형태 등 논의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탈레반 조직원들.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 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이 15일(현지시간) 아프간 대통령궁도 수중에 넣은 뒤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미국이 지난 5월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자 3개월만인 자, 탈레반이 이후 급속도로 아프간 내 세력을 넓힌 뒤 이날 6일을 전후해 주요 거점 도시들을 장악한 지 불과 10일만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프간 1TV는 밤이 되자 수도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고, 외교관들과 아프간 관리들이 탈출을 위해 물려간 공항 근처에서도 총격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방송은 탈레반의 사령관들이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무장 대원 수십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다. 탈레반 대원들은 아프간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탈레반

기도 게양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앞서 미군 철수 시작 이후 탈레반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하다가 이날 카불까지 함락하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국외로 급히 도피했다.

외교관들과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철수에 나선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의 성조기도 내렸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한라칼럼



송관필, 꽃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

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다. 특히 제주도는 해발 1950m의 한라산과 360여개의 오름으로 이뤄진 화산이란 지질학적 특성과 한반도 끝자락에서 약 80km정도 남쪽에 위치하는 섬이라는 지리학적 특성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는 없어서는 안 될 보고이다. 제주도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약 40%가 서식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생물체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은 수백만년의 화산폭발로 섬이 만들어짐에 따라 수백 개의 다양한 미세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중요성과 꽃자왈

해안 등의 조건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여러 방위로 분포하고, 독특한 환경을 가지는 만큼 생물의 서식하는 환경이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중 꽃자왈은 웅암이 흐른 대지위에 형성된 생태계로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자 과거 제주의 목축문화의 산물인 역사문화의 자료이다. 그리고 식물학적 측면에서도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빌레나무, 제주고사리삼 등이 자라는 지역이며, 계곡이 아닌 평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 지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생각하는 꽃자왈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꽃자왈은 '꽃'과 '자왈'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개념은 비슷하나 꽃자왈의 해석은 다양하게 형성돼 있다. 이런 개념을 하나로 묶고 정의하기 위해 개편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서는 꽃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진 불규칙한 암괴 지대로서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꽃자왈이란 용어가 만들어진지 약 20여년이 지났고, 개개인이 생각하는 꽃자왈이 있는 상태에서 법률상에서 정의한다고 정의가 통일되지는 않는다.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을까? 직접 보여주는 방법이 최고다. 실체를 보여주지 못해서 꽃자왈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고 꽃자왈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경계설정 및 보호지역 결과 공람은 그 시급성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꽃자왈은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이 흐른바다. 이유는 용암의 굴곡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래전 주변의 화산폭발에 따른 쇄설물에 의해 그 위를 쌓았다면 아마도 흔적도 없고 송이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잔디

나 역세 그리고 숲이 형성돼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남아있는 용암의 흐름은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고 자원화 할 수 있을까? 2007년도부터 '꽃자왈 한평사기 운동'을 시작해 꽃자왈 공유화 재단이 설립됐고, 이를 중심으로 꽃자왈 공유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단체, 국내의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산림청에서는 매해 꽃자왈을 구입해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는 중요한 자원인 꽃자왈을 보호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트레킹 코스 개발을 통한 활용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술연구와 가치발굴은 수행돼야 할 과제이다.

열린마당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을 앞두고



부용식, 해녀박물관장

현상호(玄尙好, 1914~1971)는 구좌읍 하도리 출신으로 사회주의 운동가이며 사상가이다.

최근 해녀박물관에서는 현상호가 저술한 '제주도 해녀 투쟁의 사실(史實)'이라는 논문을 제주항일기념관으로 부터 대여받아 입수했다. 6.25가 발발한 해인 1950년 9월에 발표된 이 논문은 '제주 해녀항일운동'과 관련한 각종 자료에 1차적 인용이 자주 되는 것으로 '제주 해녀항일운동'의 동원인원수 1만7000여명과 집회 횟수 230여회의 근거를 이 논문에서 찾고 있다.

이 논문의 의의를 찾는다면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역사적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실형 선고와 관계없이 '제주해녀항일운동'과 관련한 검거자와 당시 이 운동에 방해 공작을 일삼은 친일 부력자

의 명단이 실려 있으며,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31년 12월 20일, 하도 해녀들이 바다로 출항해 제주읍 소재 제주어업조합 농성 점거를 계획하던 모습을 표현한 것도 이제롭다.

이와 함께 이 운동과 관련한 삽화(插話)와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강창보(1902~1945)의 경찰서 탈출기(脫出記)와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총괄과 교훈을 담아 놓고 있다.

내년이면 '제주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난 지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것에 맞춰 해녀박물관에서는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다. 1931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인 1월 27일까지의 구좌 상산 우도 지역의 제주 해녀들의 항일운동 전개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다각도로 특별전에 담아 보고자 한다. 거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주인의 강인함과 제주인만이 갖고있는 특징인 공동체적 연대감을 통해 강한 외세에 저항하는 제주인의 단결된 '저항정신과 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전을 계기로 해녀문화의 산실인 해녀박물관이 질적으로 성장해 제주 동북부 지역의 '해녀문화 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 가족 지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강동훈,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2월 5일 새벽 2시쯤 애월읍 유수암리의 2층짜리 목조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586건, 이 중 주거시설 화재는 120.7건이며, 전체 대비 20.5%를 차지한다.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는 전체 연평균 화재로 인한 사망자 6.3명 가운데 4.7명(74.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국 화재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이 55%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시간에 발생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대피가 지연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주소방본부는 2024년까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 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의 협력이 없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정에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Cheilsa Yangbokjeom (제일사 양복점) featuring a 30th anniversary sale with prices for suits (3 for 150,000, 2 for 120,000, 1 for 70,000) and a map of the location.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Hearing Aids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a hearing specialist and product images.